



SEPTEMBER 1998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36-70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TEL: 920-5354 FAX: 923-3507
발행인: 곽동일 / 편집인: 연병길 / 등록번호 제 2-124 호 / 인쇄인: 김영길 / 인쇄처: 불해 중앙문화사 TEL: 717-5511 (대) FAX: 717-5515

권 두 언

교과서가 발간되기까지

연 병 길 (기획부장)

"휴! 옥동자를 낳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년 동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드디어 1998년 10월 2일 그것도 노인의 날에 출산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 27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회에서 기획부의 발의로 노인정신의학 교과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한지 2년만에 연구학회 사상 처음으로 교과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원래 편찬 기간을 1년 반정도로 잡고 금년 춘계학술대회에 발간하기로 하였지만 약 반년 계획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지연된 원인 중 하나는 원고가 제 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금년 4월경에는 대부분의 원고가 들어왔고 4월부터 출판사를 중앙문화사로 결정하고 편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정작업 및 색인 작업에 들어 갔다. 사실상 이 작업이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중요한 작업이어서 실무위원 외에 김용구, 남범우, 서국희 선생이 함께 참여하였다. 모두 7번 교정작업을 하였으며 매번 밤 10시, 11시가 되어서 끝나기 일췌였다. 중간에 실무위원 중 기백석 교수가 몸이 불편하여 못나온 적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며 아픈 중에도 직접 전화를 주기까지 하였다. 곽동일 회장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매번 실무회의에 참석해서 실무위원들을 독려했었다. 곽 회장님은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편집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실무위원들이 그냥 지나친 것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어서 실무위원들을 놀래게 하였다. 마지막 교정은 타워호텔에서 곽동일 회장님, 이민수 총무부장, 김인수 실장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훑어 내려가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 노인정신의학회 임원 및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많은 노력 끝에 노인정신의학이 출간되게 되었다. 교과서 표지의 디자인은 초록색의 자라나는 잎사귀들로 된 바탕 무늬 위에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노란색의 교과서 제호가 들어가게 하였다. 아마도 노인정신의학 학회지 보다 더 독특하고 산뜻한 표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편찬위원회에서는 교과서 판매로 남는 수익은 출판비용과 우리 회원이 아닌 저자들에게 드리는 약간의 수고료를 제외하고 모두를 노인정신의학회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여하신 저자들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린다.

최근들어 주변에서 창립한지 4년밖에 안 되는 연구학회가 어떻게 교과서를 발간하게 되었느냐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 무엇보다도 곽동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노인정신의학회의 단결력과 팀워크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앞으로 노인정신의학 교과서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노인정신 의학을 널리 알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 기타 노인단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계속 개정판이 규칙적으로 나와 노인정신의학의 최신 지식이 담긴 알차 교과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1998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 시: 1998년 10월 9일 (금) 13:30-18:30

장 소: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13:30-14:00 등록 및 전시
14:00-14:10 인사말

사 회: 오 병 훈(학술부장)
박 동 일(학 회 장)

심포지움 한국노인정신의학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 I

14:10-14:30 한국노인출대
14:30-14:50 노인정신건강 정보화추진방향
14:50-15:00 질문 및 토의

좌 장: 신 석 철(충남의대)
우 행 원(이화의대)
오 병 훈(연세의대)

특 강

15:00-15:30 한국노인복지정책
15:30-16:00 한국노인정신의학의 미래
16:00-16:20 질문 및 토의
16:20-16:40 휴 식

좌 장: 유 계 준(연세의대)
이 태 한(보건복지부)
박 동 일(학 회 장)

심포지움 II

16:40-17:00 한국노인정신질환의 연구방향
17:00-17:20 노인정신약물의 발전방향
17:20-17:30 질문 및 토의

좌 장: 이 정 호(인제의대)
박 종 한(대구효성가톨릭의대)
이 민 수(고려의대)

연계발표

13:30-17:30 포스터 발표 및 전시
(16:00-16:20) -포스터 발표 토론-

정기총회 및 노인정신의학 출판기념회

17:30-18:00 정 기 총 회
18:00-18:30 출판기념회 -인 사 말-

사 회: 이 민 수(총무부장)
박 동 일(편찬위원장)

일 시: 1998년 10월 9일 (금) 09:00-12:00

장 소: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전공의 워크숍 노인성 치매의 최신지견

09:00-09:30 등 록
09:30-10:00 노인성 치매의 원인
10:00-10:30 노인성 치매의 임상양상
10:30-10:40 질문 및 토의
10:40-10:50 휴 식
10:50-11:20 노인성 치매의 진단과 감별진단
11:20-11:50 노인성 치매의 치료와 관리
11:50-12:00 질문 및 토의

사 회: 이 철(가톨릭의대)
좌 장: 조 맹 제(서울의대)
나 덕 렬(성균관의대)
김 성 윤(울산의대)
좌 장: 정 인 파(고려의대)
기 백 석(중앙의대)
한 일 우(웅진효자병원)

• 총무부 소식 •

1. 1998년 8월 21일 98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차 임원회가 신라호텔 Parkview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계학술집담회, 추계학술대회 및 교과서출판기념회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2. 치매에 관한 일반인용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3. 노인정신의학회보 5권 2호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4. 1994년 4월 12일~14일 베이징에서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 Beijing Joint Meeting이 열릴 예정입니다. 본 학회 광동일회장님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5. 1998년 9월 21일 18:30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Sharon Rogers, Ph.D.가 치매에 대한 새로운 약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본 학회임원들과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학술투 소식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집담회

■ 일 시 : 1998년 9월 18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소강당

사 회 : 이 민 수 (총무부장)

15:30 - 16:00 등 록

15:30 - 16:00 인 사 말

광 동 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장)

이 형 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사 회 : 오 병 훈 (학술부장)

윤 가 현 (전남대 심리학파)

16:10 - 16:50 현재 한국노인들의 심리

16:50 - 17:00 질문 및 토의

17:00 - 17:10 휴 식

사 회 : 윤 진 상 (전남의대)

17:10 - 17:50 NMDA 수용체와 Alzheimer 치매 김 승 현 (고려의대)

17:50 - 18:00 질문 및 토의

18:00 - 20:00 친교 및 저녁식사

• 기획부 소식 •

■ 기획부 모임

• 일 시 : 1998년 8월 28일(금) 오전 7시

• 장 소 : 신라호텔 Parkview

• 안 건 : Newsletter 제 5권 2호 편집에 관한 건, 노인의 날(10월 2일) 행사 참여에 관한 건

•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회 소식 •

- 노인정신의학 2권 2호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과서 편찬위원회 소식 •

• 노인정신의학(Textbook of Geriatric Psychiatry)의 편찬작업이 완료되어 추계학술대회시('98. 10. 9)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책은 총 4 part, 36 chapter, 약 420 page로 구성되어 있으며 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고 가격은 3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편찬경과를 살펴보면, 1996년 12월 27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차 임원회에서 교과서 발간을 결의하고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위원장 : 박동일, 간사 : 이민수, 연별길, 위원 : 신석철, 우행원, 박종한, 정인파, 조맹제, 오병훈, 이 철, 기백석, 전진숙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년에 걸친 산고 끝에 발간을 눈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노인정신의학에 관심이 있는 정신과의사, 간호사,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기타 노인정신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노인정신의학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투고 •

미국정신의학회 참관기

전 진 숙 (고신의학대)

1998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현대적인 건축미와 자연미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구 6백만의 대도시 Toronto에서 개최된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에 참석하여 얻은 Hot Topics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최측의 주된 관심분야는 치매, 정신분열병, 기분장애로 집중되었으며, 미국이 때마침 경제적으로 호황인 관계로 좋은 연자를 모시고 매우 준비가 잘된 좋은 심포지움이 많아서 많은 경비를 들이고 학회에 참석한 보람이 있었으며, 시종일관 여기저기 들어가보려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으나 지적, 정신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고 자극과 활기를 주는 학회였다.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역시 주제는 알츠하이머형치매에 관한 최신지견들이었는데, Cummings교수가 주관한 "Practical Alzheimer's Disease Management : A Comparative Review of New Compounds, Diagnosis, Treatment & Outcome Assessment"이란 제목의 심포지움이 특히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었으며, Schneider 교수가 주관한 "Hot Toics in Alzheimer's Disease"에서는 apolipoprotein E-ε4 and Alzheimer's disease : Search for the Truth, 진단적 검사의 유용성,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성약물과 estrogen 및 H₂ 차단제의 예방효과, 항산화제와 Selegiline의 임상적 사용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Tacrine외에 사용이 가능한 Cholinesterase Inhibitors로서 Donepezil, Rivastigmine, Metrifonate, Galantamine, Physostigmine, Eptastigmine 등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 해외 연수기 •

San Diego에서의 2년

우 성 일 (경상외대 정신과)

1994년부터 10월말부터 1996년 10월말까지 약 2년간 미국 UC San Diego의 신경과학연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수를 하였고, 귀국한지 약 2년이 지나서 다시금 그 당시를 기억해 보자니 여러모로 의미가 새로웠다.

먼저 연구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미국의 대학의 연구시스템은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었다. 치매 환자들의 임상적인 진료와 연구는 ADRC(Alzheimer's Disease Research Center)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서 생존시에 상세한 기록을 남기며 추적이 되다가 죽으면, 대개의 경우 뇌를 기증하기로 한 생전의 약속대로 기증한다. 이런 뇌들은 사후 수시간내에 적출이 되어 뇌의 한쪽 반구는 영하 80도 가까운 온도에서 냉동이 되어 향후의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위해 보존이 되고, 다른 반구는 포르말린으로 고정되어 병리연구를 위해 보존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뤄진 뇌은행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므로 진단이 확실하고 인체의 뇌를 직접 연구하므로 결과가 좋다. 대학내에 있는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과 대학외에서 초청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강의나 세미나 등이 수시로 열려서 치매나 인접 분야의 새로운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었다. 필자는 연수 이전에는 경상대학교 암연구소의 워크샵 참가 이외에는 분자생물학 실험의 경험이 거의 없이 가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서 배우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영어는 AFKN 방송청취를 통한 듣기 연습을 대학교때부터 해온 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의 연구 과제는 크게 보아 3가지였다. 처음에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Amyloid protein precursor, APP)의 promotor부근에 있는 2개의 nucleotide repeat polymorphism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APP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이후 다른 연구원의 후속연구를 위해 넘겼었고, 다음에는 루이체 치매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CYP2D 유전자의 10 nucleotide repeat polymorphism과 루이체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울해 하다가, 1995년 2월부터는 인체의 뇌에서 CYP2D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연구하다가 새로운 alternative splicing pattern을 발견하고 약 80명의 환자와 정상인의 뇌조직에서 CYP2D 유전자의 발현을 보고서 연구를 어렵사리 마무리 짓고 귀국하였다. 필자의 연구지도는 일본인으로서 미국대학의 교수였던 Tsunao Saitoh 교수가 해 주었는데, 과학자로서의 아이디어나 업적과 연구실의 운영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필자의 귀국 6개월전에 불행하게 죽고 말았었다.

필자가 있던 연구팀에는 동양인 연구자들이 많았으며 특히 중국인 미국 이민자, 중국계 캐나다인, 일본인 연구 연수자, 한국인 이민자, 필자, 유럽에서 온 연구자들, 대학원생, technician들까지 해서 대략 15명 정도는 되었었고, 각기 다른 project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 동양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연구상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특히 한국인이며 미국 영주권자로 대학원생이었던 Dave Kang, 일본의 교토대학의 분자생체연구소 교수였고 신경과 의사였던 Seigo Tanaka,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대학원생이었던 Leigh Hsu 등과 친하게 지냈다. Dave는 APP, LRP(Lipoprotein related protein), NACP(Non-amyloid component protein of AD) 등에 여러모로 관여하며 연구를 하고 있었다. Seigo는 당시에 이미 외국 잡지에 논문을 20여편 실었고, 인체의 뇌조직에 발현하는 APP의 alternative splicing pattern과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들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주 업적으로 갖고 있었다. Leigh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나타나는 신경반(Neuritic Plaque)의 중심(core)에서 amyloid beta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NACP에 대하여 세포배양법으로 연구 중이었다.

필자는 이들과 연구는 물론 운동도 함께 하며 지냈는데, 연구에서건 체력적으로건 미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결코 만만한 경쟁자가 아님을 깊이 느꼈다. IMF에게 구제 금융을 받게된 지금 외국인들에게서 받은 그러한 개인적인 느낌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국제화를 통해 선진외국의 효율적, 경쟁적인 시스템과 정치경제적, 학문적인 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응방법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사고 방식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향후의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국연수중에 알게된 학문하는 사람들과는 지금도 교류중이며 치매분야 연구의 급격한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노인 정보

노인 복지 정책 안내

1. 노인복지현황

○ 노인인구 증가 추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현재 6.3%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생활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국민소득 1만불시대)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이상 노인의 과반수 이상(전체노인의 55%)이 월평균 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수입원은 자녀나 가족등 의존이 53.8%, 일 직업의존이 27.9%, 연금 퇴직금 저축등 9.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제 3자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제적 타격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

○ 여가 및 사회참여

- 평균수명 연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인단독세대 증가

-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 세대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사회적 여건 변화

- 최근 핵가족화, 산업화 추세와 함께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이자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퇴조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각종 경로우대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대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과 가족내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 노후생활안정대책

-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사회적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97년부터는 70세이상노인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어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근로능력있는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 취업알선기관(70개소) 및 고령자 적합직종(40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장려금(매분기 9만원)및 지급대상 기업을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건강관리대책

- 치매노인 10년 대책 추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정 또는 일반요양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증치매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70여개소 확충할 계획이며, 치매병원도 2000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 확충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95년부터 의료보험급여를 통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하여는 무료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한 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암검사등 노인이 회망하는 노인성 특수질환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이지만 주로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진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소내에 노인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의 설치를 통하여 전국의 보건소를 노

인성 만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질환노인에게 간병인 안내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정봉사원과견사업(49개기관 운영)을 실시하고, 직장, 출장 등의 사유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에 낮동안 또는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오락,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40개기관 운영)을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즐겁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확충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전국 30,401개소 운영)에 대하여는 월4만원의 운영비 및 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상담, 취업안내, 의료보험, 연금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1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공동 난방 및 취사에 따른 경비절감,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고자 노인의 집을 30개소(총328개소)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시설 확충

노인들의 여가 및 주거생활여건 확충을 위해 유료양로시설, 요양시설, 종합복지타운 등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시설당 50-60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세제감면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일부노인이 자연보호, 교통안내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와 노후생활을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육성하고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지정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경로주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선포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정부주관 행사와 노인 체육대회,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범국민적 노인공경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경로우대 확대

65세이상 노인에게 대해 철도, 항공기등 운송운임 할인제도【현재 통일호 50%,무궁화호 30%, 국철 및 지하철(무료), 선박 20%, 항공기 10% 할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공경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경로우대제도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학대(Elder Abuse) (출처 : <http://www.acjnet.org/docs/eldabpfv.html>)

○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란 노인에게 해를 주는 고의적 행동이나 고의적 태만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1) 신체적 학대-신체적 공격이나 상해, 혹독한 기후에 노출시킴, 부적절한 투약, 불필요한 신체적 억제 등, 2) 성적 학대, 3) 심리적 학대-모욕, 고립, 협박, 활동의 부적절한 통제, 판단 능력이 있

태도 판단력을 제거함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시 압 등의 방법으로 오용, 태만
인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약품 개인적 보살핌, 우 등을 적절히 제공하 못함

누가 피해자인가?

노인이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캐나다의 전국적인 조사에서 개인 거 세 노인의
가 최근 한 가지 이상의 학대나 태만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누가 가해자인가?

가해자는 대개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된다. 1985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한 노인의 절반 이상은 학대를 한 사람과 살고 10로 나타났다

○ 왜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가?

다양한 요인들이 학대에 관여하며, 각 경우는 각자 독특한 요인들의 복합에 의해 일어난다.

1) 학대적 유형의 상호 관계 -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관계한다. 성인 자녀들
이 부모에 의해 학대받아 왔거나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들이 학대를 조장한다. 아내 학대의 경우에
그것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거나 무능력한 남편에게 아내가 보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의존성
- 노인은 가족들의 도움에 어느 정도 의존적이 되며, 반대로 학대를 하는 사람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의존적이 되어 다른 가족의 물질적, 심리적 능력에 부담을 주게 되어 학대가 시작될 수 있다. 3) 스트
레스, 4) 중독(intoxication), 5) 무지 - 노화 과정과 노인의 욕구에 대한 무지가 때때로 노인의 심리
적, 신체적 안녕에 해가 될 수 있다. 6) 사회적 태도 - 우리 사회는 능력, 정력, 자기 의지, 신체적 아
름다움 등을 강조하며, 나이가 들어 이러한 특징들이 쇠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노인의 가치를 경
시하여 무가치하고 매력없다고 생각하여 존경을 주지 않게 된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을 학대하기는
훨씬 쉬운 법이다

○ 노인 학대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보통 부끄러워하고 때때로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하기가 매우 어
렵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이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누구도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안 된
다 고립되어 있거나 무능력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구나 간병 전문인들이 학
대의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찾아 보아야 할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수준과 재산 상태의 불일치, 2) 영양실조와 부적절한 신체적 간호, 3) 적절히 설명되지 않
는 신체적 상해, 4)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 때의 위축되거나, 무감각하거나 두려워하는 행동, 5) 의학
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함.

만약 학대받는 사람이 절박한 위협에 처하면, 경찰을 불러야 한다.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정도라면,
의사, 사회사업가, 지역사회 혹은 가정 간호사, 심리학자나 변호사 등의 적절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되
어야 한다. 학대의 조사는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만약 학대가 확인되
더라도, 노인은 가능한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가능한 모
든 대안에 대해 정보를 주고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대받는 노인이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개인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노인은 스스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상담과 지지 서비스가 학대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노인의 구조 보호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치료 프로그램 소개 •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치매병동

오 병 훈 (진료부장, 노인병동소장)

흔히 치매란 예전에는 조금 지나친 정상노화과정이나 또는 노망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현재의 치매 진단기준은, 지능이 완전히 발달한 이후 여러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적기능이나 직업활동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인식장애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뇌 장애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약 5~10% 정도로 보고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5세이상의 노인인구중 약 9~10% 정도가 되는 약 2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의 원인으로는 약 70가지 이상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원발성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으로 발생하는 다발성경색치매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알콜성치매나 외상성 뇌손상후에 오는 치매도 주요한 치매의 원인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치매는 현재 증가하는 환자수, 만성적인 경과 및 이로인한 의료비상승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란 이처럼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유교적인 전통에서 내려오는 가치관 및 잘못된 인식된 질병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 사회보장예산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의 경영상의 문제로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 및 인력관리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치매환자의 경우 치료적인 면에서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세브란스병원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96-6번지에 1993년 11월 2일 대학병원 최초로 5만평의 녹음이 깃든 대지에 건축면적 2,000평, 200병상규모의 정신과 전문병원을 개원하여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임상, 교육, 연구에 정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낮병원, 알코올병동 및 환경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드디어 1995년 5월 8일 국민건강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어왔던 치매노인낮병원을 개원하였고, 1996년 5월 8일에는 15병상 규모의 안락한 노인성치매환자, 전문병동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병실규모는 15병상이지만 가족치료실, 휴게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 중환자실 5병상을 준비하여 20병상의 노인성 치매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광주세브란스병원 치매병동의 특성은 환자수보다 많은 직원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정과 같은 안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치매병동관리에 힘쓰고 있다.

본 치매 병동의 특징은 신경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재활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기진단 및 세부 신경인지기능의 변별을 위해 전산화 신경인지기능 검사 도구인 Vienna Test System을 갖추고 있다. 구조적 환경은 신경인지기능저하를 환경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단순·체계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행동치료적 인지재활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재활로는 개인별 세부 신경인지기능 결핍에 따라 특정의 인지재활을 일반 자극법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전산화 인지재활 장비인 REHACOM을 활용하고 있으며, 집단 인지치료를 통해 보상적 차원에서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다른정신사회적 접근으로는 자극-지향치료로서 음악치료, 레크레이션, 치매 체조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또한 기분의 상승을 위한 회상치료가 운용되고 있다.

본 병원은 비록 병상수는 적으나 환자를 상태에 따라 단기입원, 부분입원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입·퇴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가족이 함께 상주하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원

에서는 치매병동을 운영하면서 치매노인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단지 안전관리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최첨단의 시설투자 보다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끝으로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병원 발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길 바라며, 특히 저희 치료팀이 꾸준한 인내를 갖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봉사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안내문의** :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노인병동 안내
0347) 61-1890~3 (교환 500, 501)
0347) 65-0442

• 신간 안내 •

□ "치매, 알츠하이머병"

- 저 자 : 김승업(아주의대, 뇌질환 연구센터 소장)
- 출판사 : 도서출판 삶과 꿈

□ "노인의학개론"

- 저 자 : 조주연 등 공저(순천향의대 가정의학과)
- 출판사 : 순천향대학교 교육매체 제작센터

• 회원동정 •

- ☞ **곽동일** 회장(고려의대) :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Beijing Joint Meeting(1992. 4. 12~14)의 scientific committee의 member로 선출되었습니다.
- ☞ **이민수** 회원(고려의대) : 1998년 8월 25일 뇌의약학연구센터 '정신질환연구팀'의 팀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 **XXIst CINP CONGRESS(Glasgow 12-16 July 1998)**에 **곽동일** 회장님, **신석철** 부회장님(충남의대), **이정호** 부회장님(인제의대)을 비롯하여 **정인국** 편집위원장(고려의대), **연병길** 기획부장(한림의대), **오병훈** 학술부장(연세의대), **이민수** 총무부장(고려의대), **전진숙** 학술부원(고신의대), **최인근** 기획부원(한림의대) 등의 임원과 **김도관** 회원(성균관의대), **김영철** 회원(이화의대), **김현우** 회원(단국의대), **백인호** 회원(가톨릭의대), **이상원** 회원(서울적십자병원), **이수일** 회원(한림의대), **이창욱** 회원(가톨릭의대), **이중경** 회원(국립서울정신병원), **이형영** 회원(전남의대), **조숙행** 회원(고려의대), **채정호** 회원(가톨릭의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 ☞ **이 철** 회원(가톨릭의대) : 1998. 9. 9.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주최의 장기이식의 최신지견의 심포지움에서 장기 이식의 정신과적 측면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 ☞ 1998. 4. 24~25.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형원** 감사(이화의대)가 '교육문제와 정신건강'에 대해, **박민철** 회원(원광의대)이 '지지치료의 원리'에 대해, **김현우** 회원(단국의대)이 '지지치료의 기법'에 대해, **김유광** 회원(김유광 신경정신과 의원)이 '연극과 삶 -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삶을 조명하며 -'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조두영** 회원(서울의대)이 '문학과 연극의 정신의학적 측면'에 대해, **김영훈** 회원(인제의대)이 '난치성 양극성장애 어떻게 치료하나'에 대해 각각 지정토론을 해주셨습니다.
- ☞ **신상철** 회원(충청북음병원)이 한국임상예술학회 회장으로, **이민수** 회원(고려의대)이 부회장 겸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신석철** 부회장(충남의대)이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으로, **백인호** 회원(가톨릭의대)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1998. 8. 30.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3차 개원의 연수교육에서 **정인국** 회원(고려의대)

대)이 '최신약물치료의 소개와 처방'에 대해, 김경식 회원(가람 신경정신과 의원)에 '대체의학이란?'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 ☞ 박정산 회원(건국의대) : 1997. 12. 26부터 일년 동안 미국 UCLA 치매병원에서 Clinical Fellow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 ☞ 김용구 회원(고려의대) : 1998. 9. 1부터 조교수 발령을 받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 ☞ 이희상 회원(연세의대) : 1998. 8. 13~1999. 8. 12까지 미국 뉴저지주립대학(RUTGERS)의 약리학교실로 연수교육을 떠났습니다.

• 해외학회 소식 •

1.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AAGP), 12th Annual Meeting

- VENUE : New Orleans Marriott Hotel, New Orleans, LA, USA
- TIME : March 14 - 17, 1999
- THEME : Geriatric Psychopharmacology : Enhancing Benefits, Reducing Risks
- Website : WWW.aagpgpa.org

2.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Beijing Joint Meeting

- VENUE :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TIME : April 12 - 14, 1999
- Secretariat
IPA-Beijing Joint Meeting
Institute of Mental Health, Beijing Medical University
No. 51, Huayanbei Road, Beijing, 100083, CHINA
Tel : +86 - 10 - 620091953 Fax : +86 - 10 - 62027314
E-mail : shenyc@mail.bjmu.edu.cn

3.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 VENUE : Congress Centrum Hamburg(CCH) and Hamburg University HAMBURG, GERMANY
- TIME : August 6 - 11, 1999
- Congress and Exhibition Office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CPO HANSER SERVICE
Hanser & Co GmbH
Office Hamurg
P.O. Box 1221
D-22882 Barsbüttel, Germany
E-mail : cpo@wpa-hamburg.de
http : //www.wpa-hamburg.de

4. 9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 VENUE : Vancouver Trade ANd Convention Center, Vancouver, CANADA
- TIME : August 15 - 20, 1999
- Secretaria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550 Frontage Road, Suite 2820
Northfield, IL. 60093 USA
Tel : 1+847 - 784 - 1701 Fax : 1+847 - 784 - 1705
E-mail : ipa@ipa-online.org
Web : http : //www.ipa-online.org

• 「노인정신의학(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투고 규정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2회(5월, 10월) 연구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ⅢⅢⅢ 논문 접수처 ⅢⅢⅢ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학회지 편집위원장 정 인 과
TEL : 02-818-6139
FAX : 02-852-5794

■ 논문제출요령 및 기타 공지사항

- 투고요령은 개정된(97. 1) 신경정신의학회지와 동일하다.
- 논문원고는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는 A4 용지에 2열 간격으로 인쇄한 것을 2부 논문 접수처로 제출한다.
-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3.5인치 디스켓으로 함께 제출한다.

大韓老人精神醫學會 任員陣 (1996~1998)

	TEL	FAX
會 長 : 郭 東 日 (고려의대)	02) 920-5940	02) 923-3507
副會長 : 申 石 澈 (충남의대)	042) 220-7287	042) 253-0450
李 正 浩 (인세의대)	02) 950-1083 · 950-1906	02) 936-8069
監 事 : 禹 幸 源 (이화의대)	02) 760-5138	02) 744-9521
朴 宗 漢 (효성가톨릭대)	053) 650-4785 · 650-4282	053) 623-7507
總務部 : 李 敏 秀 (고려의대)	02) 920-5354	02) 923-3507
李 哲 (가톨릭의대)	02) 590-1531	02) 594-3870
趙 成 男 (치료감호소)	0416) 857-2601	0416) 857-2608
金 隆 喜 (용인정신)	0331) 281-8251	0331) 281-8267
學術部 : 吳 秉 勳 (연세의대)	0347) 65-0442	0347) 64-8662
金 昌 鉉 (국립의료원)	02) 260-7296	02) 260-7296
田 珍 淑 (고신의대)	051) 240-6245 · 250-5070	051) 241-5069
李 義 相 (연세의대)	0347) 61-1890 (교 112)	0347) 64-8662
企劃部 : 延 炳 吉 (한림의대)	02) 224-2268	02) 487-0544
奇 栢 錫 (중앙의대)	02) 260-2254	02) 279-8474
崔 仁 根 (한림의대)	02) 639-5460 · 639-5462	02) 677-9095
崔 鍾 赫 (국립서울정신)	02) 204-0357	02) 458-0731
編輯委員會 :		
鄭 寅 果 (고려의대)	02) 818-6738	02) 852-1937
吳 秉 勳 (연세의대)	0347) 65-0442	0347) 64-8662
延 炳 吉 (한림의대)	02) 224-2268	02) 487-0544
趙 孟 劑 (서울의대)	02) 760-3155	02) 744-7241
李 敏 秀 (고려의대)	02) 920-5354	02) 923-3507
韓 一 宇 (용인정신)	0331) 281-8251	0331) 281-8267

• 회비납부 안내 •

총무부 온라인 계좌번호

예 금 주 : 이 민 수(대노정)
서울은행 : 34204-0032965

변동사항이 있는 회원이나 회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문의바랍니다.

전화 : 02) 204-0357 · 전송 : 02) 458-0731 최 종 혁
전화 : 02) 224-2268 · 전송 : 02) 487-0544 연 병 길



1997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전공의 워크숍
(일 시 : 1997년 4월 11일(금))